

올 여름 폭염, ‘정남진 장흥 물축제’서 날려보세요

26일~8월3일, 탐진강·우드랜드 일원
태국 송크란 공연팀 등 ‘축제 세계화’



전라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부터 8월3일까지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흥군은 올해 물축제를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개최한다는 포부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시작은 개막일인 오는 26일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로 알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발하는 퍼레이드 행렬은 중앙로 일대에서 장흥군민과 관광객, 글로벌 공연팀이 함께하는 워터 퍼포먼스를 펼친 후 지상 최대의 물싸움장까지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태국 송크란 공연팀과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팀 아나포가 퍼레이드를 더욱 신나게 이끌 예정이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장흥물축제는 축제 기간 지상 최대의 물싸움, 수중 줄다리기, 장흥 워터비트,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등 물놀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매

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즐길 수 있다. 몸풀기 체조 및 사전 북업 댄스공연 후 DJ 음악에 맞춰 물싸움이 벌어진다.

올해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천변 하류 주차장에 수중 축구장, 미로, 슬라이드,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물놀이장은 축제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게임도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 잡기가 진행된다.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남녀노소 관광객들의 치열한 추격전이 장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우든보트,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탐진강을 떠다니며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수중 탈 거리들도 준비하다.

축제의 밤 역시 뜨겁게 달궈질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뜨거운 여름밤, 축제장을 더욱 뜨겁게 할 장흥 락 페스티벌이 열려 윤도현 밴드, 육종완 밴드, 노브레인, 크랙샷 등 국내 정상급 락밴드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8월1일과 2일은 물축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강렬한 EDM 파티 ‘워터 비트’가 펼쳐진다. 오후 5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DJ뮤즈, 펜타곤-키노, DJ 김성수(쿨), 엑스러브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 한다.

이 외에도 정남진 강변음악축제, 장흥 POP콘서트, 장흥 10개 읍면 주민자치 경연대회, 국립무용단 2025축제 KBC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축제장에서는 소고기, 키조개, 버섯 등 장흥의 특산물을 조합해 맛보는 장흥만의 삼합 페스타도 펼쳐질 예정이다. 장흥의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삼백초 발효액, 매실청, 표고버섯 음료, 청태전 차 등 슬러시 페스타도 진행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며 “오는 26일부터 9일간 열리는 물축제에서 가슴 뛰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 순천만 조망 ‘새 용산전망대’ 오늘 개방

전라남도 순천시가 순천만의 원형 생태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용산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해 11일 개방한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용산전망대는 단순한 조망을 넘어 원시적인 자연생태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한 역사를 한 눈으로 응축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된 용산전망대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지어졌으며, 건축면적은 124.88㎡이다.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해 용산전망대 진입 구간

약 908m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망대에서는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조 군락, 낙조, 흑두루미 도래지 등 순천만의 대표 생태 경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람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도래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자연 기반 생태지 유관광과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8년 연속 ‘생활여건 개조’ 공모 선정

전라남도 보성군은대통령 직속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조성면 매현리 덕촌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보성군은 8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어촌 생활여선 개조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조성면 덕촌마을에는 붕괴 위험 옹벽 정비, 이동식 소방시설 설치,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어르신 전통휠

체어 전용 주차장 조성, 주택 정비 등 총 20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2015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의 별교을 봉림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개 마을이 선정돼 이 중 7개 지구는 준공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지구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연속 선정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정주 여건 개선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보성=양종수 기자

여수 오천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추진

전라남도 여수시는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서 오천일반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경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했으며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는 오천일반산업단지 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립한 리뉴얼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대상 기업은 여수오천산업단지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의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

된 △그린씨푸드 △유성수산 △해청식품 △창대피앤비 △미주 △국보수산 △납선수산 △아라움 △신흥제약 △태웅물산 등 총 10개 업체다. 이들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작업장과 복지시설 개보수, 공장 외관 정비, 위생·공조·전기설비 개선 등을 진행하며 근로환경과 청년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맞춤형 리뉴얼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한 총 7억 4000만원으로, 기업당 약 5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9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운영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시민들이 고충 사항을 털어놓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해결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난 9일 국민권의위원회와 함께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운영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의위원회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

된 상담반이 직접 지역을 순회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대면 상담하고, 고충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 제도다.

이번 상담에서는 교통·도로, 산림·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분야의 민원

이 주로 접수됐으며, 총 4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20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거나 해소됐고, 나머지 25건은 국민권의위 고충 민원으로 별도 접수돼 추가 검토를 거쳐 처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복잡하고 막막했던 문제를 바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분청의 여름은 특별하다’ 국악 한마당 공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전라남도 고흥군이 12일 분청문화박물관 일원에서 ‘7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분청의 여름은 특별하다’라는 주제로 박물관 무료 관람, 전통과 현대의 조화 퓨전 국악 한마당, 대한민국 3대 도자기 분청사기 물레 시연 및 흙 도장작기, 분청사기갑작 활인판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벤트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흥군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화장비



누 만들기과 가족 공예 동전지갑 만들기 체험(유료, 각각 1000원)도 운영된다.

또 모기퇴치 도토리 목걸이 만들기, 여름 보석스티커 무드등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름 특별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박물관 관람 후기 이벤트’와 ‘행운의 6만 번째 관람객

을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된다. 당첨자에게는 분청사기 도자기 등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이 밖에도 분청 공짜 편의점에서는 추억의 7080 과자와 간식을 증정하고, 즉석에서 팝콘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해 추억과 재미를 동시에 선물할 계획이다.

한편 연간 10만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운영 중인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5월 분청사기 국보소회전을 시작으로 분청문화의 날, 제1회 어린이 그림잔치 페스타 등 연이은 행사 흥행에 힘입어 6월 말 기준 5만 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고흥=심정우 기자